침체일로 서귀포시… 어려움 공감 속 해법은 '제각각'

한라일보와 제민일보·JIBS 등 도내 언론3사는 2일 오후 JIBS스튜디오 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 시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

이날 토론회는 ▷출마의 변 ▷주제 질문 ▷주제지정 상호토론 ▷공통질 문 ▷후보 주도권 토론 ▷반론 주도 권 토론 ▷후보별 마무리 발언 순으 로 80분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나 와 제주4·3특별법, 제2공항, 1차 산업 등 현안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출마의 변

▷강경필=지난 3년간 더불어민주 당 정권의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 정상 궤도를 한참 벗 어난 것이다. 서귀포시는 어떤가. 경 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 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민국 을 정상적인 국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야하는 사명감으로 출마하게 됐 다. 서귀포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성곤=제주4·3이 72주년을 맞 았다. 무고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명복을 빌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에 게는 깊은 위로를 전한다. 더디게 가 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을 제21대 국 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동안 시민들의 도움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험과 자산으로 번영의 서귀포시를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위성곤 "고품질 감귤정책" VS 강경필 "유통시스템 개편"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위 "절차적 정당성 확보" VS 강 "조기 착공 동시에 보상"

만들겠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강경필=제2공항은 조기에 착공 돼야 한다. 착공과 동시에 삶의 터전 을 잃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도시 건 설과 농업인의 경우에는 대체농지를 제공해야 한다. 제2공항은 문재인 대 통령 공약사항이며, 국토교통부가 확 정한 국책사업이다. 더이상 착공이 지연된다면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 가 발생한다. 갈등 해소는 착공과는 별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위성곤=제2공항은 필요하다. 하 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적 정당 성도 함께 확보돼야 한다. 의정활동 중 주민과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서귀포시는 송악산 군 사기지와 화순항, 강정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무시돼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똑똑히 봤다. 강 정해군기지처럼 공동체가 해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위성곤=감귤·채소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감귤 산 업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바뀌고, 기후 변화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고품질 감귤 정책이 필요하다. 여 기에 품종 다양화와 유통체계 혁신도 절실하다. 채소의 경우는 생산량 조절 과 보관시설이 필요하다. 서귀포시에 는 제대로 된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 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경필=최근 감귤 가격이 폭락 해 생산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다. 마늘은 계약재배 면적이 적다 보 니 국가에서 수매를 한다고 해도 계 획이 늦어 산지에서 폐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월동채소도 해상운송 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송비를 확보하고, 새로 운 유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마 늘은 조기수매가 이뤄질 수 있는 정 책이 필요하다.

▶ OX 토론 1. 나는 모범생이다.

▷위성곤=모범생이 아니다. 놀기 좋아하고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긋난 사 람은 아니다.

▷강경필=1963년 리단위에서 태어



2일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등 도내 언론3사가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외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나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 녔다. 거기에 모범생이 있었겠는가.

▶OX 토론 2. 교육부의 온라인 개 학은 옳은 결정이다.

▷강경필=옳은 결정이다.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어떻게 전 개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 급격한 전 파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 다고 생각한다.

▷위성곤=더이상 수업일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능도 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채우 지 못하면 입시체계가 무너진다. 온 라인 개학 과정에서 개인행동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강 의를 충실히 들을 수 있는 여건도 마 련돼야 한다.

▶마무리 발언

▷강경필=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다. 대한민 국을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고, 침 체된 서귀포시에 활력을 불어 넣느냐 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 위기를 누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

지 잘 판단해야 한다. 강경필을, 미래 통합당을 지지해달라.

▷위성곤=요즘 대한민국 국민인게 자랑스럽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 한민국과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위대한 국민들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 나도 함께 노력하겠다. 지금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지원 돼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 4년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부 족함도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할 일 이 많다. 더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쟁 점

해상운송비 접근 방식 놓고 이견

강 "법률간 상충 부분 있어" 위 "실증연구예산 반영 단초"

해상운송비와 관련해서는 접근 방식 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해상운 송비는 오랜 세월 제주도의 숙원임에 도 예산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도서개 발 촉진법 등 법률간 상충되는 부분이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인 데, 법을 개정해서 정부 부처와 협의 를 해야한다"고 위 후보를 훈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국회 에 있으면서 매년 해상운송비와 관련 된 문제를 정부와 협상했다. 그런데 법 안이 충돌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반대로 저는 올해 처음으로 해상운송 비 실증연구 예산 8억원을 반영시켰 다. 이는 제주도가 벌인 10여년 노력의 단초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는 "연구 예산을 확보한 것

과 해상운송비 예산이 같냐"면서 "법 안이 상충되는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잘 살펴보라는 당부다. 저번 토론회 때도 당부를 했는데 확인 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 후보는 "다짜고짜 법안만 말하 면 어쩌라는 것이냐"면서 "열심히 해 서 성과 낸 것은 칭찬해달라. 일단 나 무를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 고 응수했다.

한편 감귤값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 ▷과다 생산 ▷수종 노령화 및 품종 개량 미흡으로 인한 품질 문제 ▷소 비자 선호과일 다변화 등으로 의견을 일치시켰다. 송은범기자

제2공항 입장차에 날선 공방

위 "갈등해소 발언 문제" 강 "일방적이라 말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 합당 강경필 후보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위성곤 후보는 강경필 후보가 '갈 등해소는 제2공항 추진과 별개로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위 후보는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갈등해소와 관련 별도의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2 공항 추진하고 갈등해소는 어떻게 할 거냐"며 물었다.

이에 강 후보는 "일방적인 강행이 라고 말하면 안된다"며 오히려 위 후 보에게 "과거 현 위치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고 했을때 당시 위 후보는 도의원 신분으로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 후보의 입장 을 되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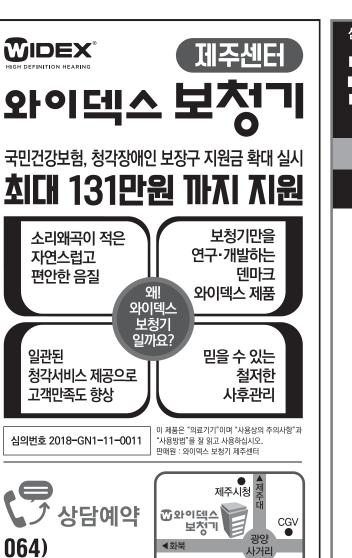
그러자 위 후보는 "지금도 당시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엔 강 후보가 위 후보의 '올해 내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겠 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 후보는 "의견 수렴해서 주민반 대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며 "확정된 사업도 반대 의견이 많으면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물

이에 위 후보는 "현재 도의회에서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 고 원희룡 지사도 그 노력을 존중하 겠다고 얘기했다. 국책사업이지만 도 지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라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사거리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